

Canon, 유해물질 국제폐지 앞장!

일본, 금속소재 대체로 채용확대 ... 2005년 PRTR 물질 50% 삭감목표

Canon이 유해물질 폐지를 위한 글로벌 전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유럽의 전기·전자 기기에 관한 유해물질규제(RoHS지령)로 규정된 6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28군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케이스는 대체화 요청과 사용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Canon은 2002년 자사가 규정한 A Rank 관리물질인 오존파괴물질과 토양오염물질을 전폐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다.

목표달성 물질은 해외사업소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자재담당창구를 중심으로 해외 관련부서에 담당자를 파견해 2004년 말까지 유해물질의 전폐를 추진할 방침이다.

Canon은 화학물질의 자율규제에 대해 각종 규제법 이상으로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는데, 약 2200물질을 3 Rank로 나눠 관리·삭감·전폐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내의 유해물질 삭감을 위한 중기환경목표는 A Rank(사용금지), B Rank(배출억제), C Rank(배출관리)로 나눠 각각 목표달성률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까지 A Rank의 목표를 달성했고 B, C의 목표 달성률도 70-90%에 달했다.

Canon은 2002년 12월 RoHS지령에 대응하는 유해물질 배제대응팀 <G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글로벌 관점에서 재구축에 나섰다. 일본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약 1500종의 재료와 2만3000여 종류의 부품을 대상으로 거래처에서 28 물질의 사용상황과 함유량 보고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RoHS 지정물질을 검증하고 대체화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캐논의 생산제품 함유 화학물질 조사항목

대분류	No.	물질명	대분류	No.	물질명
금속류 화합물	1	Antimon · 화합물	할로겐계 유기화합물	16	염화 파라핀
	2	비소 · 화합물		17	PBB 류
	3	Beryllium · 화합물		18	PBDE계
	4	Bismuth · 화합물		19	할로겐계 수지첨가제
	5	Cadmium · 화합물		20	PCB계
	6	Chromium 화합물		21	폴리염화 나프탈렌 (염소수 3 이상)
	7	6価 Chromium 화합물		22	폴리염화비닐
	8	Cobalt · 화합물		23	Asbestos 류
	9	Lead · 화합물		24	Azo Compound
	10	Mercury · 화합물	25	Cyan 화합물	
	11	Nickel 화합물	26	오존층 파괴물질	
	12	유기 Tin 화합물	27	Ester Phthalate	
	13	Selen · 화합물	28	방사성물질	
	14	Tellur · 화합물			
	15	Thallium · 화합물			
			기타		

2003년에는 1998년 대비 B Rank 물질의 사용량 20% 삭감, 배출량 90% 삭감, C Rank 물질 배출량 20% 삭감, PRTR 대상물질 배출량 50% 삭감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2010년 비전 중 RoHS 지령대상물질의 2004년 말 전폐, 수지종 삭감, 프린트 기관의 Non-Halogen화, PVC 대체목표를 구체화했다.

유해물질 제거는 2005년까지 2000년 대비 배출량 50% 삭감, PRTR 대상물질 60% 삭감을 지향하고 있는데, 회수·재이용 촉진, 염소계 용제를 중심으로 한 사용량 삭감이 핵심이 되고 있다.

해외사업소에서는 자재 담당, G프로젝트, 사업부 담당자가 연계해 해외 관련부서에 담당자를 파견하고 유해물질 전폐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유해물질의 2004년말 전폐를 달성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버지니아 거점의 Dichloromethane 전폐를 2003년 중 실시하고 초박 도공용 용제의 대체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Chemical Journal 2003/12/12>